

# 내장산 길손

김 동 필

정읍(井邑)의 멋과 아름다움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랴. 빼어난 내장산(內藏山)의 정기, 그 품안에서 펄펄 쏟아지는 맑은 물 때문에 정읍이라 했다.

「야, 이 사람아, 단풍놀이 갔다왔나? 어디 어디해도 단풍은 역시 내장산이 제일이야. 불꽃으로 타는 단풍이 아름다운 여인의 치맛자락 같애」. 내장산의 단풍을 두고 흔히 듣는 말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을을 아끼는 나그네야, 단풍을 그리워하는 애인들과, 뭐 그리 바쁜게야, 티끌 세상에 찌든 가슴 가만히 다락에 밀쳐두고 내장산에 오라. 그럼, 단풍다운 단풍을 만나고 물다운 물을 맛볼 것이다.

저 하늘이 높는데 내장산을 지나는 사람이 어찌 시인이 아니 될 수 있겠는가. 무정한 세월 자락에 맞힌 한숨 푹푹 털어 놓고, 얼른 서래봉(西來峰) 기암에 올라서면 황해의 만경창과가 눈 앞에 펼쳐지고, 훨훨 넓디넓은 호남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면 왼쪽의 질긴 상처는 저만큼 멀러나고 「아, 이 시원스런 맛이었구나」 하는 생각만 남는다.

옛부터 내장산은 전북의 자랑이요, 한국의 8경에 손을 꼽아 주었고, 호남 5대 맹산의 수좌(首座)로 일러왔다. 신선들이 가을 단풍 구경을 내려왔다는 가장 높은 봉우리 신선봉(神仙峰), 인도의 마라난타가 서래봉을 인연하여 불법(佛法)을 전하니 서래(西來)라 했다하고, 또한 그 모습이 농기구인 씨래 모양과 흡사하다하여 이름 붙여진 서래봉, 그 밑에서 아라한(阿羅漢)이 났다하여 일러진 불출봉(佛出峰), 그뿐이겠는가, 월령봉, 망해봉, 연지봉, 연자봉, 장군봉, 까치봉...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 시원한 바람간다.

금년에 100주년을 맞은 만주의 햇불이었던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바로 정읍이었으니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부르짖던 전봉준(全琫準)장군의 거룩한 정신을 다시 새겨보는 시민의 감수는 자궁에 차 있다.

또한, 정읍은 「정읍사(井邑詞)」의 고장이다.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읊은 백제가요로서 현재 전하여 오는 백제 유일

한 노래다. 또한 이 노래는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다. 정읍사의 내용을 나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달님이시여, 좀더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어 주소서. 지금쯤 전주 시장에 가 계시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시다가 혹시 진 데를 디더 흙탕물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웁니다. 몸도 고달프실텐데 아무데나 짐을 부려놓고 편안히 쉬소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사웁니다.’하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정읍은 부풀어 있다. 현재의 정주시(井州市)와 정읍군(井邑郡)이 내년 1월1일자로 통합되리라 한다. 통합이 되면 인구 20만의 정읍인은 내장산의 푸른 정기를 받고, 정읍사의 그 기다림의 정한 속에서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읍, 더 아름다운 내장산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내장산,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안에 숨은 것이 많은 성싶다. 금선계곡, 원적계곡, 추령계곡, 백양계곡, 남창계곡, 금선폭포, 도덕폭포, 몽계폭포, 금강폭포, 용수폭포가 물을 뿌리고, 용굴, 신선문, 금선대, 기름바위, 백학바위, 서래봉 기암들이 절묘한 자태를 자랑하고 섰다.

내장산 품안에 몸을 들여놓으면 시를 쓰야 한다. 산의 푸른 기(氣)가 영혼을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바스러진 몸으로도 돌아가야 할 곳이 산이다. 그러기에 나는 ‘내장산 길손’에게 시를 쓴다.

영근 단비 산향으로  
가을을 안고 가는 사람아,  
찬이슬 씨알이 되어  
바람도 떨리던

내장산의 아픔을 아는가  
구름 쉬던 서래봉에  
독경 소리 휘감기면  
젖은 놀빛  
타는 단풍  
뒤돌아 보는 저 신선아.  
외마디 능금빛 바램으로  
산을 몰고가는 사람아,  
꿀안개 색깔이 되어  
물소리도 숨죽이던  
내장산의 소식을 아는가

어디를 가란 말이야? 갈 곳은 있다. 모처럼 그리운 연인을 만났거든 도시의 빌딩 숲을 빠져 나와 빨간 멧쟁이 모자를 눌러 쓰고, 내장산 단풍숲을 거닐며 그 추억의 한나절을 렌즈에 잡아라. 현대를 살아가는 현기증, 그 초췌한 주름살은 사정없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내장산에 태고가 숨쉬고 있다. 산평이 푸드득거리는 산향(山香)을 가슴에 담아 가라.

#### △ 필자소개

- 수필가·시인
- 한국문인협회 정주지부장
- 호남고등학교 교사

저 서 : 하얀대화

그리움이 타는 길목  
풀잎의 축제  
정읍의 전설  
정읍지방의 민속  
역새풀 하얀 머리